

오승환, 이르면 이번 주 300세이브...주말엔 잠실 라이벌전



세이브 2개만 더하면 한국 프로야구 최초 300세이브 달성

한화 통상 세번째 4000홀런·롯데 두번째 900세이브 도전

‘끝판왕’ 오승환(삼성 라이온즈)이 이르면 이번 주 KBO리그 세이브 역사를 다시 쓴다. 오승환은 12일 현재 KBO리그에서만 298세이브를 획득했다. 295세이브로 시즌을 시작한 오승환은 다소 부침이 있었지만 4경기에서 3세이브를 획득, 300세이브에 바짝 다가섰다.

오승환의 세이브는 곧 KBO리그의 역사다. 2005년 데뷔 첫 해를 제외하고 줄곧 마무리로 활약한 오승환은 KBO리그 통상 세이브 1위를 달리고 있다. 일본과 미국 진출로 공백기가 있었지만 전체 2위 손승락(은퇴·271세이브)에게 크게 앞섰다. 현역 2위 정

우람(한화·182세이브)과는 100개 넘게 차이난다. 소속팀 삼성은 창단 첫 개막 4연패 후 4연승으로 제대로 반등했다. 이번 주에는 한화 이글스, 롯데 자이언츠(이상 3승4패)와 6연전을 갖는다. 팀 성적에 따라 오승환의 300세이브 도달 시기가 정해진다. 어쨌든 시간 문

제인 것만은 확실하다. 한화는 통상 세 번째 4000홀런에 7개 남았다. 롯데는 세이브 2개를 보태면 역대 두 번째 900세이브에 도달한다. 시즌 초반 주도권을 잡으려는 10개팀의 경쟁은 이번 주에도 계속된다. 선두 LG 트윈스(5승2패)는 주중 3연전에서 키움 히어로즈(4승4패)를 상대한다. 서서히 페이스를 끌어올리고 있는 지난 시즌 통합 우승팀 NC 다이노스와 추신수의 가세로 타

선의 짜임새가 더해진 SSG 랜더스(이상 4승3패)의 맞대결도 관심을 끈다. 4연패로 최하위까지 밀려난 KT 위즈(2승5패)는 두산 베어스(4승3패) 원정으로 한 주를 시작한다. 주말 3연전에서는 잠실 라이벌전이 팬들을 찾아간다. 두 경기에서 14이닝 무실점으로 모두 승리를 챙긴 LG 새 외인 투수 앤드류 수아레스가 두산을 상대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 줄지 기대된다.

뉴스

한국 펜싱, 세계유소년·청소년선수권 종합 3위...역대 최고

금메달 2개·은메달 3개·동메달 4개 획득

한국 펜싱이 2021 세계유소년·청소년선수권대회를 역대 최고 성적으로 마무리했다. 한국은 11일(현지시간) 이집트 카이로에서 막을 내린 대회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3개, 동메달 4개를 획득, 종합 순위 3위에 올랐다. 역대 최다 메달으로 일군 최고 성적이다. 대회 첫날 청소년 여자 사브르 전하영(대전광역시청)의 개인전 금메달로 기분 좋은 출발을 한 한국은 청소년 여자 사브르 단체전에서도 전하영, 장보련, 이주은, 박주미(이상 한국체대)가 금메달을 따냈다.



2021 세계청소년펜싱선수권 대회에서 여자 사브르 개인전 금메달을 후학한 전하영. (사진=국제펜싱연맹 제공)

청소년 남자 플뢰레 개인전 최동운(부산외국어대), 유소년 남자 플뢰레 개인전 안현빈(서울체고), 유소년 남

자 사브르 개인전 박준성(오성고)은 은메달을 거머쥐었다. 청소년 여자 플뢰레 개인전 주영지(서울시청), 유소년 남자 플뢰레 개인전 이성민(서울체고), 청소년 여자 에페 개인전 김소희(경기도청), 유소년 남자 에페 개인전 김도완(울산고)은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대한펜싱협회는 “유소년·청소년대표팀은 한국 펜싱 사상 역대 최고 성적, 역대 최고 메달, 최고 높은 순위로 이번 대회를 종료했다”며 “앞으로 차기 국가대표로 성장해 2024 파리올림픽,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2028 LA 올림픽의 전망을 밝게할 것”이라고 전했다.



배드민턴 국가대표팀, 화순서 ‘도쿄올림픽 담금질’

선수단 46명 이달 말까지 하니움에서 훈련

화순군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이하 하니움)에서 도쿄올림픽을 향한 대한민국 배드민턴 대표선수단의 담금질이 한창이다. 화순군에 따르면, 대표선수단은 지난 7일부터 하니움 체육관에서 도쿄올림픽에 대비한 강화 훈련을 하고 있다. 대표선수단의 강화 훈련은 30일까지 24일간 이어진다. 이번 훈련에는 김충희 감독 등 지도자를 포함해 대표선수단 46명이 참

여했다. 코로나19 방역 수칙 등을 철저히 지켜가며 훈련에 매진하고 있다. 대표선수단은 코로나19 유행에도 화순이 안전한 훈련을 할 수 있고, 하니움 등 스포츠 기반 시설이 잘 갖춰진 화순군에 대해 강화 훈련을 하고 있다. 화순군은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이용대체육관, 하니움복합체육관 등 우수한 스포츠 기반 시설들을 갖추고 있지만,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전지훈련 유치를 지양해 왔다. 이번 배드민턴 대표선수단의 전지훈련 유치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오는 7월 23일부터 17일간 열리는 도쿄올림픽에 참가할 예정인 국가대표 선수단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화순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전지훈련 유치 등 스포츠 마케팅 활동이 위축돼 있으나 앞으로 코로나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스포츠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화순=박순철 기자

골 넣고 고개 숙인 손흥민 “정말 이기고 싶었는데…”

맨유 상대로 빛바랜 리그 14호골·한 시즌 정규리그 최다골 타이...팀은 1-3 역전패



손흥민은 12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0~2021시즌 EPL 31라운드 홈경기에서 전반 40분 선제골을 터트렸다. 리그 14호골(9도움)이자 시즌 19호골(16도움)이다.

‘손세이셔널’ 손흥민(29)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를 상대로 자신의 한 시즌 정규리그 최다골 타이 기록을 세우고도 고개를 숙였다. 손흥민은 12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0~2021시즌 EPL 31라운드 홈경기에서 전반 40분 선제골을 터트렸다. 루카스 모우라가 상대 페널티지역 우측을 돌파한 뒤 반대편으로 낮

고 빠른 크로스를 올렸고, 손흥민이 침착하게 원발 슈트로 골망을 흔들었다. 지난 2월 웨스트브로미치알비언과의 23라운드 이후 약 2개월여만의 정규리그 득점이다. 리그 14호골(9도움)이자 시즌 19호골(16도움)이다. 또 2016~2017시즌 세웠던 자신의 한 시즌 정규리그 최다골(14골)과 타이틀 이했다.

뉴스

하지만 토트넘은 후반에만 3골을 실점하며 1-3으로 역전패를 당했다. 손흥민은 경기 후 토트넘 구단 채널과의 인터뷰에서 “오늘 결과는 정말 실망스럽다. 노력했지만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팬들에게 죄송하다. 정말 슬픈 날이다”고 말했다. 맨유전 선제골에 대해선 “무슨 의미가 있겠나. 정말 이기고 싶었다. 부상 회복 후 지난(뉴캐슬과의) 경기에서 교체로 나왔는데 비겼다. 그래서 오늘 더 승리를 원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날 패배로 토트넘(승점 49)은 리그 7위에 머물렀다. 정규리그 7경기가 남은 가운데 다음 시즌 유럽축구 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출전권이 주어지는 4위 웨스트햄(승점 55)과는 승점 6점 차다. 손흥민은 “100% 전력을 다해야 한다. 이번 시즌을 잘 마치고 싶다. 우리가 결과를 낸 뒤 다른 팀이 승점을 잃기를 기다려야 한다. 매 경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현진, 하루 더 쉬고 내일 양키스전 등판

게릿 콜과 맞대결 불발

‘코리아 몬스터’ 류현진(34·토론토 블루제이스)이 하루 더 쉬고 14일(한국시간) 시즌 첫 승에 도전한다. 12일 캐나다 매체 TSN에 따르면 찰리 몬토요 토론토 감독은 뉴욕 양키스와 13~15일 벌이는 홈 3연전 선발 로테이션을 공개했다. 토론토는 팔꿈치 통증을 털고 복귀한 로비 레이에게 13일 마운드를 맡긴다. 이어 14일 류현진, 15일 로스 스트리클링이 출격한다.

당초 13일 등판이 유력했던 류현진은 하루 더 휴식을 취하고 선발 등판한다. 2021시즌 세 번째 등판이다. 류현진은 2일 양키스와 개막전에서 5%인 4피안타(1홈런) 1볼넷 5탈삼진 2실점을 기록하고 승패 없이 물러났다. 지난 8일 텍사스 레인저스전에서는 70닝 동안 홈런 1개를 포함해 2피안타 7탈삼진 2실점으로 호투하고도 타선 지원을 받지 못해 패전을 떠안았다.

아직 첫 승을 챙기지 못한 가운데 양키스를 다시 만났다. 개막전 선발 맞대결 상대였던 양키스 게릿 콜과 재대결은 무산됐다. 개막전에서 5%인 2실점을 거뒀던 콜은 13일 등판 예정이다. 14일 양키스 마운드는 제임스 타이온이 오른다. 타이온은 시즌 첫 등판이었던 지난 8일 볼티모어 오리올스전에서 4%인 2피안타 2탈삼진 2실점을 맞으며 2실점했다. 한편, 12일 월요일 예정이던 토론토와 LA에인절스의 경기는 우선으로 순연됐다. 이 경기는 8월11일 에인절스의 홈구장인 에인절스스타디움에서 더블헤더 1차전으로 치러진다.

황의조 시즌 11호골...4경기 연속골 기록

PK 선제골 보르도, 생테티엔에 1-4 역전패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앙(1부리그)에서 뛰는 황의조(29·보르도)가 시즌 11호골을 넣었지만, 소속팀은 역전패했다. 보르도는 11일(한국시간) 프랑스 스타드 조프루아 기샤르에서 벌어진 2020~2021시즌 리그앙 32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생테티엔에 1-4로 크게 졌다. 이날 최전방 공격수로 선발 출전한 황의조는 전반 8분 페널티킥 선제골로 포문을 열었다. 팀 동료 메히디 제르칸이 연어넌 페널티킥을 황의조가

키커로 나서 성공했다. 이로써 황의조는 4경기 연속 득점이자 정규리그 11호골(2도움)을 기록했다. 하지만 황의조의 선제골도 보르도는 이후 4골을 실점하며 무너졌다. 생테티엔은 전반 18분 와흐비 카즈리의 페널티킥 동점골로 균형을 맞췄고, 전반 22분 카즈리의 추가골로 역전에 성공했다. 보르도는 골대 불운과 오프사이드로 동점골 기회를 놓쳤다. 생테티엔은 후반 26분 카즈리가 한



차례 더 페널티킥에 성공하며 해트트릭을 완성했다. 또 후반 35분에는 제두 유수프의 썬기골로 4-1 역전승에 마침표를 찍었다. 최근 3연패에 빠진 보르도(승점 36)는 리그 15위로 내려갔고, 2연승을 달린 생테티엔(승점 39)은 13위로 올라갔다. 풀타임을 뒀 황의조는 축구통계사이트 후스코어닷컴으로부터 팀 내 세 번째로 높은 평점 6.3점을 받았다.

뉴스

FC서울 ‘캡틴’ 기성용, K리그 3월의 선수상 선정

6경기 3골 1도움

프로축구 FC서울 ‘캡틴’ 기성용이 K리그 3월의 선수상 주인공이 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2일 “기성용이 3월 EA스포츠가 후원하는 EA 이달의 선수상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기성용이 K리그에서 이달의 선수상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또 서울 소속 선수로도 최조다.

이달의 선수상은 한 달간 열린 K리그1 경기의 베스트11, MOM, MVP에 선정된 선수 중에서 연맹 경기평가위원회의 투표(60%)를 통해 후보군을 선정한 뒤 팬 투표(25%)와 EA 온라인 유저 투표(15%)를 통해 결정한다. 기성용은 2월 말 개막 라운드부터 3월까지 치른 6경기에서 3골 1도움을 올렸다. 3경기 연속골로 서울의 3연승

을 이끌었다. 기성용은 김보경(전북), 세정야(대구), 조현우(울산)와의 경쟁에서 모두 득표율 1위를 차지했다. 3월의 선수가 된 기성용에게 EA코리아가 제작한 트로피를 주며, 이번 시즌이 끝날 때까지 ‘이달의 선수(Player Of The Month)’ 패치를 유니폼에 부착한다.

뉴스